

# IMF, 韓 국가채무비율 증가세 경고...재정준칙은 국회 낮잠

## 작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54.3%...기축통화국 평균 첫 역전 5년 뒤 10%p 이상 벌어질수도...“나랏빚 증가세 제어해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주요(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에도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반년 만에 1%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경기 둔화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4.3%로 추산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한 보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통용된다.

한국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인 5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달러나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일컫는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가운데

대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몰타, 아이슬란드, 체코,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경기 대응을 위해 씹씹이를 키웠지만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나랏빚 관리에 돌입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세를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평균 3.6%포인트(p) 줄었다. 그 사이 한국은 3.0%p 증가하며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IMF는 현 추세라면 이 같은 역전 현상이 한 동안 지속되는 것은 물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55.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0.9%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에는 55.9%, 2025년 56.6%, 2026년 57.2% 등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꾸준히 하락해 2025년에는 50%(49.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에는 한국과 비기축통화국간 격차가 10%p 이상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준을 내세우며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나랏빚 증가 속도 완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실제 채무비율이 하향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올해 1~2월 국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때

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나랏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면 대외 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하면 ‘남도장터 할인쿠폰’ 지급



전남도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남도장터’ 1만원 포인트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도 포인트 5000

### 전남도, 우수 농축수산물 판매 ‘남도장터’ 1만원 쿠폰 선물

원을 소급 지원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사업과 남도장터 판매 촉진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전남 우수 농축수산물 판매 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 가입할 때 남도장터 가입에 동의한 사람에게 누구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이 발급된다. 쿠폰은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04년 개설한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전남의 대표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1826개 업체가 입점해 전남에서 생산하는 과일·채소·육류·가공식품 등 다양한 지역 농축수산물과 특산물 3만3217개를 판매하고 있

다.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는 매출 603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17일부터 모든 상품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남도장터에서 맛-나자!’ 기획전을 시작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5월, 심(心) 봤다’ 기획전을 연이어 추진한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남도장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포터즈 누리집(namdo2.jeonnam.go.kr)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브라운, 핸드 블렌더 ‘멀티퀵1’ 출시

### 손목 부담 줄인 626g·강력한 450W 모터

독일 주방 가전 브랜드 브라운이 핸드 블렌더 ‘멀티퀵1(MQ10.202M)’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약 626g의 무게로 브라운의 블렌더 제품 중 가장 가벼워 손목에 무리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력한 450W의 모터로 각종 재료가 문질 걱정 없이 빠르고 고르게 갈린다.

또 원터치로 간편하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지 트위스트’ 시스템으로 본체에서 액세서리를 빠르고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다. 기본 블렌딩 칼날 외에 다지기, 거품기 등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요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지기(초파) 기능을 사용하면 고기류, 견과류, 각종 야채 등 어떤 재료 등 빠르게 다질 수 있다. 거품기(휘스크)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란, 크림 등을 휘젓거나 거품을 낼 수 있다.

멀티퀵1의 비커는 바로 계량이 가능하며 제품 사용시 내용물이 튀지 않도록 설계됐다. 모든 용기는 비스페놀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 ‘BPA 프리’ 트리아산 소재로 구성돼 있다.

오유나기자

## “장애물 인식·회피 기능 강화”...‘로보락 S8 플러스’ 출시

### 로보락 S7 플러스 업그레이드

로보락은 신제품 울인원 로보청소기 ‘로보락 S8 Plus’(로보락 S8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로보락 S8 Plus는 지난해 출시된 후 베스트 셀러로 자리잡은 로보락 ‘S7 Plus(S7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로보락 S8 Plus는 3D 구조광 적외선 방식의 장애물 회피 기능과 IR 방식의 적외선 기술을 탑재했다. 장애물 인식과 회피 기능이 향상됐다. 어두운 공간에서도 양발, 장난감 등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

신제품은 플래그십 모델인 ‘로보락 S8 Pro Ultra(로보락 S8 프로 울트라)’와 동일하게 듀오 롤러 라이저 브러시(Duo Roller Riser Brush)도 있다. 머리카터나 이물질 엉킴을 예방한다. 또 기존보다 크고 무거운 이물질을 강력하게 흡입한다. 기존 제품 대비 240% 향상된 6000Pa(파스칼)의 흡입력을 갖춰 진공 청소 능력이 향상됐다.



로보락 S8 Plus는 음파 진동 물결레질 시스템도 강화됐다. 분당 최대 3000회 진동하는 음파진동 물결레질 청소를 통해 바닥에 달라붙은 얼룩과 먼지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도중 카펫 감지 시 물결레질 모드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오토 리프팅 기능을 갖췄다. 2.5ℓ의 대용량 먼지통을 L재해 최대 7주간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준다.

로보락은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로보락 S8 Pro Ultra ▲로보락 S8 Plus ▲로보락 S8 등 총 3종으로 구성된 로보락 S8 시리즈를 갖게 됐다.

이슬비기자

## 올 1분기 벤처투자 1조원도 안됐다...60% 줄어 8815억

### 게임·바이오·의료 업종 투자 감소율 커

2023년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2조 2214억원 대비 60.3% 감소한 8815억원이다.

그중에서도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게임 등의 업종에서 투자 감소율이 컸다. ICT서비스

해당 업종은 1016억원 대비 8.5% 증가한 1102억원을 유지했다.

업력에 따른 투자 현황도 차이도 두드러졌다. 업력이 3년을 초과하고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기업은 지난해 유지한 1조205억원 대비 71.1%감소한 2948억원을 유지했다. 후속투자 유치가 어렵고, 회수시장도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된 초기기업이나 단기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은 후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선욱기자

##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면 주가 오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골드만삭스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1982년 이후 6번 이뤄진 연준의 긴축 이후 주가를 조사한 결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 1년 동안 평균 19% 상승했다. 6번 동안 진행된 긴축 사례에서 주가는 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주요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과 주가가 이미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들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S&P500 기업들의 이익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기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S&P500의 향후 12개월 예상수익 대비 주가는 18배인데, 이 수치를 지난 40년 동안 데이터와 비교해 백분위로 나타내면 81번째에 해당했다.

허블 캘러한앤코의 브래드 콩거 최고투자

자책임자(CIO)는 “현재 주식시장에 큰 안도감이 있지만 그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월가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 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긴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비자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500 기업들의 실적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 주기가 끝난 무렵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 9%보다 낮은 수치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최이슬기자